

HEADLINE NEWS

공개행정의 첨병, 인터넷혁신시스템 도입 (일본 : 이치카와市)

일본 치바(千葉)현 이치카와(市川)시는 시민들의 문의 및 요청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접수한 후, 담당자가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게 회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일본 IBM과 공동으로 개발해 10월중 가동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이 전자메일이나 市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거나 요청한 내용은 市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 담당부서로 전달되며, 담당자는 인터넷을 통해 이에 대한 답신을 하게 된다. 市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시민들의 문의 사항과 市 담당부서의 회신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시민들의 민원을 주제·지역별로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市는 또한 이 시스템을 통해 문의사항 접수에서부터 담당부서의 회신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별 소요시간을 즉시 파악할 수 있으며,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문의사항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현재 민간기업의 고객정보 관리용으로도 보급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다른 지자체나 관공서에도 도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日本經濟新聞, 10. 4)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홍콩식' 야경 조성 위해 기업체와 '건물조명' 사업 공동추진 (동경)
- ② '아시아 대도시 Network 21' 회의, 「反도시테러」 선언 채택 (동경)
- ③ 도시경관조성 위해 주택가 나무가꾸기 지원 (일본: 토다市)
- ④ '고층건물 건립·관리 가이드라인'으로 다양한 오피스 및 스카이라인 조성 (런던)
- ⑤ 2025년 '국제도시'를 목표로 새로운 「도시계획비전」 확정 (동경)

도시환경

- ⑥ 토양오염 유발하는 토지개발시 오염확산방지조치 의무화 (동경)
- ⑦ 「생물종다양화 전략」 수립해 야생생물 서식처 보호·확충 추진 (런던)
- ⑧ 시민의 가장 큰 불만, '소음공해' 대책 강구키로 (뉴욕)
- ⑨ 고가도로·입체교차로 밑에 나무 심어 녹지 조성 (상해)

도시교통

- ⑩ 「Buffer Zone」 지정해 혼잡통행료 면제 추진 (런던)

사회복지

- ⑪ 청각장애인에게 문자·팩스로 대중교통정보 및 재해정보 제공 (남아공: 케이프타운 / 일본: 시즈오카市)

행재정

- ⑫ 시민의 사기진작·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Make it Chicago」 캠페인 전개 (시카고)
- ⑬ "고율의 소득세가 노동인구 감소 초래" (코펜하겐)
- ⑭ 신진 문화예술인 지원하기 위해 융자제도 도입 (동경)

① ‘홍콩식’ 야경 조성 위해 기업체와 ‘건물조명’ 사업 공동추진 (동경)

일본 東京都는 동경만 야경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건물야간조명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都는 우선 야경이 아름다운 임해부도심의 레저시설이나 입주업체와 협력해 이르면 2002년 중에 ‘건물야간조명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都는 이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야경이 주요한 관광자원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都는 건물야간조명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금년중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조명디자인과 건물조명분야 전문가들을 초빙, 사례연구와 실지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都는 임해부도심의 입주업체들로 구성된 ‘거리만들기협의회’와 후지TV, 모리빌딩 등 29개 업체 및 단체로 구성된 ‘관광촉진협력회’에 건물조명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都는 건물조명사업을 위해 계절이나 이벤트에 맞춰 조명의 색조나 점등 시각을 통일하거나, 창이 있는 빌딩에 그림을 그리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都는 건물조명 이외에도 가로등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건물조명 비용은 원칙적으로 각 기업 및 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都는 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都는 인프라 정비가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임해부도심에서 건물조명기술을 축적해, 향후 都의 각 지역마다 효과적인 건물조명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日本經濟新聞, 10. 25)

② ‘아시아 대도시 Network 21’ 회의, 「反도시테러」 선언 채택 (동경)

지난 10월 18~19일 일본 東京都에서 열린 ‘아시아 대도시 네트워크 21’ 1차 국제 회의에 참석한 아시아의 주요대도시 지도자들은 「反도시테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탁병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비롯, 이번 회의에 참석한 아시아 주요대도시 지도자들은 공동선언문에서 미국 동시다발 테러사건과 관련, 도시를 파괴하는 테러행위를 강력히 비난하고, 안전한 도시사회의 실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향후 아시아 도시간 사회경제적 연대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차 회의를

내년에 인도 델리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日本經濟新聞, 10. 19)

③ 도시경관조성 위해 주택가 나무가꾸기 지원 (일본: 토다市)

일본 토다(戶田)시는 이웃해있는 3가구 이상이 자신들의 집 주변을 꽃과 나무로 가꾸겠다고 市와 협정을 맺으면, 이 곳을 「3개주택협정지구」로 지정, 경관조성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경관조례」를 11월에 제정할 방침이다. 市는 JR埼京線의 개통 이후부터 도시개발이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도시경관을 보호할 필요성을 느껴 도시경관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市가 마련한 조례안에는 이외에도 변화가 주변, 시민이 도시경관을 보호하고 싶어하는 지구 등을 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사히신문, 10. 20)

④ ‘고층건물 건립·관리 가이드라인’으로 다양한 오피스 및 스카이라인 조성 (런던)

영국 런던市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세계의 경제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 추진중인 런던계획의 실현을 지원할 목적으로 올해 10월 18일 새로운 ‘고층건물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양질의 오피스 공급, 주요지역의 재생 및 랜드마크화 등 고층건물의 긍정적 기능을 강조하고, 기존의 대중교통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새로운 오피스 건물을 집중 배치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市는 친환경적 도시를 만들기 위해 1층 공간의 공공성 확보 및 지속 가능한 건축물 구현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양하고 흥미로운 건물의 입면·최상부 처리, 용이한 접근,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재료, 보행통행을 고려한 주변공간계획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市는 이러한 도시차원의 고층건물 관리를 통해 다양한 입지·높이·형태의 건물과 다양한 임대료의 오피스를 공급함으로써 해외투자 유치에 기여하고,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활력 있는 도시 스카이라인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ww.london.gov.uk/news/2001/445-1810.htm)

5 2025년 ‘국제도시’를 목표로 새로운 「도시계획비전」 확정 (동경)

일본 東京都는 21세기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東京의 새로운 도시계획비전」을 2001년 10월 19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25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장기구상으로서, 동경의 미래상을 ‘세계를 선도하는, 매력과 활력 있는 국제도시의 창조’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이 계획은 인구감소 시대의 도래, 국제도시들간의 경쟁 격화 등 사회경제적 격변기를 맞아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제휴를 통해 전략적으로 도시를 만들어가는 정책유도형 도시계획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본지 제23호 「향후 25년을 겨냥한 새 도시계획안 발표」, 제16호 「필지 단위에서 가구(街區) 단위로 건축규제 완화」 참조)

「도시계획비전」에서는 ① 동경대도시권의 환상(環狀) 메갈로폴리스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광역교통 네트워크, 핵심거점 등 도시기반시설과 토지이용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② 수준 높은 거리환경의 조성을 위해 건축기준을 가구(街區) 단위로 적용하는 ‘가구재편 프로그램’, 개성 있는 거리조성을 위한 ‘거리 디자이너 제도’를 도입하며, ③ 행정·시민·기업·NPO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도시계획을 실현해가는 ‘NPO 등록 제도’와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제도’ 등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이번 구상은 1999년 계획 수립에 착수해 2001년 8월 최종안이 발표된 이후,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에 최종 확정되었다.

(www.metro.tokyo.jp/INET/KEIKAKU/SHOUSAI/70BAH100.HTM)

6 토양오염 유발하는 토지개발시 오염확산방지조치 의무화 (동경)

일본 東京都는 환경확보조례의 토양·지하수 오염방지에 관한 조항을 10월 1일 시행하는 것에 맞춰 토양오염대책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맨션이나 빌딩 건립 등 3,000㎡ 이상의 토지를 개발할 경우, 개발업자는 등기부 등을 근거로 토지의 이용 이력을 조사해야 한다. 또한 유해물질취급사업인 경우에는 토양의 오염상황을 조사하고, 오염이 확인되면 오염확산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침은 또한 사전에 유해물질 사용·배출상황을 파악하는 것과 함께 토양표면의 오염상황을 조사하도록 했다. 국가의 오염토양처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오염도나 분포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해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콘크리트로 처리하는 등의 확산방지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조례에서는 유해물질이 대기 중으로 흩어지거나 지하수 오염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폴리염화비페닐(PCB)이나 육가크롬 등의 유해물질 취급사업자가 공장을 폐쇄하고자 할 때에도 토양의 오염상황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日本經濟新聞, 9. 29)

7 「생물종다양화 전략」 수립해 야생생물 서식처 보호·확충 추진 (런던)

영국 런던市는 올해 10월 8일 런던의 자연보호와 보전에 관한 비전을 상세히 담은 「생물종다양화 전략(Biodiversity Strategy)」을 발표했다. 이 전략의 주요내용은 야생생물 서식처를 보호하고, 더 많은 서식처를 확충하며, 서식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전략은 런던의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첫 단계로서 수립되었다.

(www.london.gov.uk/mayor/strategies/biodiversity/docs/biomain.pdf)

8] 시민의 가장 큰 불만, ‘소음공해’ 대책 강구키로 (뉴욕)

미국 뉴욕市는 2001년 상반기에 시장실 불편신고전화를 통해 접수된 시민들의 불편사항 71,295건 중에서 80% 이상이 소음공해에 대한 불만인 것으로 나타나, 소음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 동안 관련 전문가들은 소음이 시민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어린이들의 집중력을 감소시켜 학업능력을 떨어뜨린다고 하며,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市도 1997년부터 소음규제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크게 강화했으나, 실제 단속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의견에 따르면, 시민들은 자동차 소음 등 이동소음공해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 소음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음공해 단속훈련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데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장 소음 등 고정소음공해 단속을 책임지고 있는 市환경보전국은 향후 토요일 밤시간대 소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30여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소음규제조항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전문가들은 공사장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서 또는 업체간의 공사조정 등을 비롯해 보다 종합적인 소음규제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The New York Times, 9. 4)

9] 고가도로·입체교차로 밑에 나무 심어 녹지 조성 (상해)

도심부에 고가도로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중국 상해市에서는 고가도로의 경관 개선을 위해 고가도로 난간에 화분을 놓아두거나 고가도로 밑에 나무를 심어 가꾸고 있다. 市는 줄기가 위로 길게 뻗는 다년생 식물을 대형화분에 심고, 이 화분을 고가도로 또는 입체교차로 난간에 배치해 고가도로 난간 안팎으로 식물이 넘칠지도록 했다. 또한 차가 다니지 않는 고가도로와 입체교차로 밑에는 잎이 넓은 식물을 촘촘하게 심어 녹지를 조성하고 있다.

(시정연 해외출장보고서 / 중국, 2001. 10 / 박좌진 · 함건식)

④ 「Buffer Zone」 지정해 혼잡통행료 면제 추진 (런던)

혼잡통행료 도입을 추진중인 영국 런던市 의회는 「Buffer Zone(완충지대)」 제도를 도입, 혼잡통행료 징수 경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혼잡통행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런던에서는 혼잡통행료를 5파운드 수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본지 제 13호 「市 진입차량에 ‘혼잡통행료’ 부과」 참조)

한편, 런던市 교통국은 자동전자시스템에 의한 혼잡통행료 징수를 검토하고 있어, 싱가포르 다음으로 자동징수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www.london.gov.uk/news/2001/0354-2607.htm)

④ 청각장애인에게 문자·팩스로 대중교통정보 및 재해정보 제공 (남아공 : 케이프타운 / 일본 : 시즈오카市)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수도 케이프타운市는 청각장애인들이 대중교통 정보를 문자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청각장애인들은 ‘Teldem’이라는 전화를 통해 교통정보센터에 접속하면 버스, 택시, 열차노선이나 운행시각 등의 대중교통정보를 문자로 하루 24시간 연중무휴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일본 시즈오카(静岡)시는 지난 5월부터 진도 5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청각장애인에게 팩스로 재해관련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市 보건복지부는 지진경계경보, 피난권고, 해일경보 등이 발령될 때 이 서비스를 신청한 청각장애인에게 팩스로 관련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현재 市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 110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www.cmc.gov.za/Templates/NewPress.asp?ItemCode=533)

(아사히신문, 9. 29)

④ 시민의 사기진작·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Make it Chicago」 캠페인 전개 (시카고)

미국 시카고市는 관광업계와 함께 호텔, 식당 및 관광지 이용요금을 할인해주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Make it Chicago」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행사는 미국 동시다발 테러사건으로 침체된 시민들과 미국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불경기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市는 이 행사기간 동안 호텔 예약객들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해주고, 여행자 안내센터를 통해 호텔을 예약한 사람 중 100명을 뽑아 유람선 무료이용권도 제공한다. 또한 여행자안내센터에서는 주요 관광지 무료이용권 또는 할인권과 함께 극장, 클럽, 문화센터, 식당과 상점 등에서 연중 이용 가능한 VIP 카드도 발급한다. 택시나 리무진, 전차 등의 교통수단 이용요금도 할인된다. 또한 음식점들은 뉴욕市의 재해복구를 위해 수익금 일부를 기부할 계획이다. (www.877chicago.com/makeit_chicago.html)

④ “고율의 소득세가 노동인구 감소 초래” (코펜하겐)

덴마크 코펜하겐市에서는 높은 소득세율이 노동인구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어 이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市 납세자연합회는 연간 소득이 30만 크로네(원화로 약 4,800만원, 크로네(Krone)는 덴마크의 화폐 단위) 이하인 근로자의 소득세율을 대폭 인하하지 않으면 젊은이들이 도시를 떠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동안 경제전문가들뿐만 아니라 OECD도 가혹할 정도로 높은 소득세율로 인해 노동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최근 한 조사에서 코펜하겐 지역의 근로자 급여수준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높으나, 개인의 실제 가처분소득은 오히려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조사에서 연간 소득이 30만 크로네인 주민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나서 저축할 수 있는 돈은 28크로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Copenhagen Post, 9. 14 / 9. 16)

신진 문화예술인 지원하기 위해 용자제도 도입 (동경)

일본 東京都는 東京을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젊은 문화예술인을 위한 용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都는 ‘(財)東京都 역사문화재단’을 설립해 젊은 문화예술인들의 실험적인 창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트·매니지먼트 자금용자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문화예술활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용자제도로, 일본에서는 처음 도입되었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젊은 문화예술인들이 기획단계에서부터 자금 조달이나 공연장소 확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都는 현재 공연 및 전람회 개최, 연습실 임대, 프로모션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용자해주고 있다. (www.seikatubunka.metro.tokyo.jp)

제1회 「서울정책인대상」 수상후보자 추천 접수

서울시는 시정 주요 시책의 개발·집행과정에 참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를 포상하기 위해 「서울정책인대상」을 제정하였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공무원·시민·단체 등 공로자를 찾아 시상하고자 하오니 많은 추천과 성원을 바랍니다.

시 상 인 원: 대상 1명, 본상 2명

시 상 내 용: 상패 및 상금(대상 500만원, 본상 각 200만원)

수 상 자 격: 市の 주요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데 기여한 市와 자치구의 전·현직 공무원, 市 산하기관(투자기관, 출연기관 포함)의 임직원, 그리고 개인 또는 단체

제출서류 및 소정양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www.sdi.re.kr) 참조

접 수 마 감: 2001. 11. 15(11. 15일자 소인분까지 유효)

접수 및 문의: 우 100-250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산 4-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정책인대상」 운영사무국
전화: 02-726-1221/1133, E-mail: sppo@sdi.re.kr
* 직접 방문, 우송 또는 E-mail 접수 모두 가능